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1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1. 올림픽, 메달을 넘어선 연대와 화합의 장으로
2.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
3. 성평등 올림픽 단상
4. 'XY염색체 여성' 올림픽 출전에... '해리포터' 조앤 롤링 "죽음" "미친짓" 혐오 발언
5. 신유빈은 왜 '고교 포기' 했나... 다시 도마 오른 학생선수 학습권
6. "유도만 잘했던 나라였는데..." 일본은 어떻게 올림픽 1위가 됐나
7. 기대 말라더니 금 벌써 10개... "체육회, 무능하거나 면피였거나"
8. 스물두살인데... 안세영 돌연 대표팀 은퇴 선언, 그 이유는?
9. 우수피의 질주는 꿀피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시작됐다
10. '올림픽 선수 16명 중 12명이 여성'... 북한 스포츠, 왜 '여성 파워' 주목받나?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올림픽, 메달을 넘어선 연대와 화합의 장으로



이주욱
충남대학교 교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연장선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다. 올림픽 헌장의 제6조는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은 단지 승리나 메달의 수에 국한되지 않는다. 쿠베르탱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여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림픽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스포츠와 인권,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존중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축제임을 의미한다. 자국의 승리와 메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이러한 올림픽 정신을 왜곡한다. 승리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스포츠의 본질을 잊게 만들고, 국가 간 과도한 경쟁, 선수 개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태도는 올림픽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기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는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문화를 조장한다.

한편 파리 올림픽은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지향하며, 특히 탄소 중립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실천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근대 올림픽 개최 당시 대규모 건설을 통해 도시를 개조하는 기회로 삼아온 도시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월러스 웰즈는 '2050 거주 불능 지구'에서 지구 온난화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2050년에는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현재 우리 인류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는 메달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펼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호 존중과 화합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이 된다. 올림픽은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서, 인류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류 공동의 문제를 탐색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 파리 올림픽이 메달과 순위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대와 화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올림픽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하는 데 있다.

올림픽 헌장 제1장 제6조 제1항에서는 "올림픽대회의 경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통한 선수들 간의 경쟁이다"라고 밝힌다. 또한 제5장 제57조에는 전체적인 국가별 순위를 작성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국가별 순위를 연일 보도할 것이다. 어쩌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의 순위를 기록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근거가 부족한 금메달 중심의 국가별 순위에 천착하지 말고, 올림픽의 의미를 추구하고 선진화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한 경기만을 되풀이하는 중계방송도 자제해야 한다. 파리 올림픽이 지향하는 성평등, 친환경, 사회통합 등 보편 가치를 강조하는 '선도국가형 올림픽'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

조용준 스포츠 칼럼니스트

休·味·樂 휴·미·락



주제
한글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한창이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경기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TV 중계 덕분이다. TV를 통한 최초의 스포츠 중계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었지만, 중계권료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60년 로마 대회였다. 이때부터 스포츠 중계가 경제 영역으로 들어왔다. 1968년 멕시코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본격적으로 중계권료에 관심을 둔 대회였다. 이후 올림픽 중계권료 수입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회 적자는 여전했다. 최초의 흑자 올림픽은 1984년 LA올림픽이었다. 대회 조직위원장이었던 '피터 위버로스(Peter Ueberroth)'는 방송 중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기업 후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을 위한 숙박과 경기장 시설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였다.

올림픽은 한 국가의 문화 인식을 개선하기도 한다. 1988 서울 올림픽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림픽 이전, 사람들은 만원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다. 지금은 사라진 '공중도덕'이라는 표어가 도심 곳곳에 붙어있었다. 결과적으로 서울 올림픽은 국민의 문화 인식을 개선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강요당한 국민의 희생도 있었다. 성화 봉송로 근처의 달동네, 판자촌 등을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했다. 그곳에 거주하던 수십만 명의 주민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올림픽이라는 '전가의 보도'는 약자 앞에서 더욱 잔혹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주제는 '탄소 저감'과 '친환경'이다. 지구촌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화두다. 조직위는 실천 방안으로 선수촌 숙소와 셔틀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식단 역시 채식 위주로 구성했다.

각국 선수단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런 조직위의 조치가 선수 컨디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국(富國)은 에어컨을 공수하고 식사도 따로 준비했다. 대회 취지가 무색한 결정이었다. 반대로 대회 명분을 유지하는 불편함은 오롯이 빈국(貧國) 선수들의 몫이 됐다. 이들은 경기장에서선 상대 선수와, 경기장 밖에서는 대회 취지와 싸우는 형국이 됐다.

파리엔 시내를 관통하는 '센강(La Seine)'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자락에는 '센물(hard water · 경수)'의 대명사인 에비앙이 있다. 이 중 어느 물의 가치가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올림픽에는 늘 숨겨진 그림자가 공존한다. 빛과 그림자의 혼재, 그것이 올림픽의 본질이다.

[젠더살롱] 성평등 올림픽

요가를 시작한 지는 10여 년이 훌쩍 넘지만 열심히 한 건 한 3년 정도 됐다. 나이도 들어가고 코로나19 때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탓까지 겹쳐 목과 어깨가 굳더니 두통까지 심해졌다.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다. 몇 개 병원을 돌아다니니 머리를 쓰는 연구자로 계속 살아가려면 몸부터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때부터 수영도 배웠다. 물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자로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더 컸는지 생각보다 쉽게 극복했다.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해 보고 싶은 스포츠가 더 늘었다. 올해 크로스핏을 시작한 뒤로는 근육량을 늘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파리 올림픽은 '생활 운동인'이 된 뒤 처음 맞이한 올림픽이다. 사실 올림픽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에는 별 관심이 가지 않았다. 젊고 건강한 남성 육체의 능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별로였고 거기에 '국뽕' 정서를 투사해 울고 웃으며 집단주의적 일체감을 맛보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생활 운동인이 되고 나서 보게 된 올림픽 중계방송은 사뭇 다른 쾌감을 선사했다. 수영이 영법 수행, 근육의 움직임, 속도의 조화가 참으로 역동적인 운동이라는 걸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몰랐다. 양궁과 사격 선수들의 고요해 보이는 얼굴이 실은 온 마음과 근육을 집중시킨 상태라는 것도 훨씬 눈에 잘 들어왔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몸과 마음의 다르지 않음이 흥미진진하다.

월경, 임신, 출산을 하는 몸과 운동하는 몸

차라리 아주 어렸을 적에는 몸과 마음이 일치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네뛰기,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집에 왜 왔니, 오징어 게임, 철봉놀이... 매일매일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느낀 다채로운 마음의 상태들, 조바심, 경쟁심, 기쁨, 행복감, 만족감이 생생하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함께 뛰놀던 일상이 막을 내리게 된 건 여자아이들의 가슴이 봉긋하게 나오고 월경이 시작된 직후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남자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낸 뒤 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여자아이들만 남은 그 교실에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과 월경대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웠다. 그사이 남자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2차 성징 즈음해서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골칫덩어리라는 거였다. 반대로 남자아이들은 최대한 겁 없이 몸을 쓸 줄 알아야 했다. 운동을 잘하는 남자아이와 운동에는 관심 없는 조신한 여자아이. 그렇게 우리는 젠더 질서 속으로 입성했다.

이런 사회에서 '월경을 하는 몸'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몸'은 '운동하는 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탓에 어린 여자 선수들은 월경 주기에 따른 여러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드러내기 어렵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여자치고 잘 뛰네'는 미국을 대표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던 로런 플레시먼(Lauren Fleshman)의 자전적 에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활약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미국의 육상 여자 선수들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에스트로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월경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상황을 실감나게 서술한다. 결국 섭식장애를 불러오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한 무월경 상태의 유지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져 골절로 선수생활을 마감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섭식장애, 무월경, 골다공증은 현재도 많은 여자 선수가 겪는 세 가지 문제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2018, 2019년 무렵 다양한 대중 콘텐츠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이 화제가 되었을 때 월경이 언급되고는 했다. 그러나 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월경 경험 에피소드 정도에 그쳤다. 월경이 여성인 몸을 원망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이유는 실제로 월경이 운동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 아니다. 월경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격심하게 겪어야 하는 여성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운동을 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고려와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21세기가 20년도 넘게 지난 지금도 인류가 연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는 '운동하는 몸'의 이상은 여전히 월경 따위 하지 않는 남성의 몸인 것이다.

운동하는 여자들, 여성성을 벗어난 존재로 공격받다

스포츠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몸이 젊고 건강하며 장애가 없는 남성의 몸이기에 운동하는 여성들은 자주, '지나치게 남성적인' 여자로 여겨진다. 이런 인식은 여자 선수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은 1972년 스포츠를 포함한 학교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법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이 통과된 후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지켜가고 있는 나라다. 그런 미국에서 1990년대 가장 흔하게 발생했던 여자 선수들에 대한 괴롭힘이 바로 '레즈비언'이라는 명명과 공격이었다. 여자 운동선수들은 남자가 필요 없는 레즈비언일 것이라는 편견에 기반한 혐오 공격이었다.

1997년 하버드대학에서 발행한 '하버드 게이 앤드 레즈비언 리뷰'는 "여자 스포츠 홍보자들이 여자 경기에서 레즈비언 이미지를 씻어내려고 애쓰고" 있으며 "스포츠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위해 오랫동안 힘겹게 투쟁한 레즈비언들,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불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성애자 여성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여자 선수의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세리 보셔트 지음, 노시내 역, '타이틀 나인' 참고).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고교 시절 학교 테니스부의 에이스였던 내 친구는 여학생들의 관심과 남자 코치의 '레즈비언' 의심이 모두 부담스러운 나머지 운동을 그만뒀 버렸는데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 친구가 '테니스를 잘 치는 여자'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만 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드러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들과 2019년 이후 스포츠계 미투 폭로 사건들 중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로 지목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2021년 안산 선수에 대한 관중 폭력 사건 또한 국가대표 여자 선수의 개인적 언행과 헤어스타일을 '올바르지 못한 여자=페미니스트'라는 틀 내에 가두고 이를 벌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혐오 공격이다.

이는 여자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젠더 이원 규범(남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복장과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여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복장과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원화된 일상적 규범을 뜻한다)을 벗어난 존재라고 여기면서 젠더 이원 규범을 다시금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남자의 몸과 남성성을 최고로 치는 경쟁적 스포츠계 문화는 남자 선수에 대한 성폭력이 벌어지는 토양이기도 하다. 2000년대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보고서들은 남자 지도자와 선배가 선수와 후배에게 행하는 폭력 및 성폭력을 생생하게 고발한다.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거나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이런 폭력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관심과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성평등 올림픽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용인즉슨 남녀 선수가 동수로 출전했고 엄마 선수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여자 마라톤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은 동등하게 경기할 권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평등은 모두가 그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번 올림픽이 그러한 시작이 될지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는 것도 파리 올림픽을 즐기는 한 방법일 것이다.



'XY염색체 여성' 올림픽 출전에 '해리포터' 조앤 롤링 "죽음" "미친 짓" 혐오 발언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이 성별 논란이 있는 대만 여성 복싱 선수 린위팅 등을 공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대만 정부 측은 롤링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CNA)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교육부 체육서의 정스쥘 서장은 "린위팅 선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대만을 대표해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다"면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약물 및 기타 테스트를 받아왔으며 출전 자격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린위팅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경기 컨디션에 고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IOC는 린위팅과 알제리 국가대표인 이마네 칼리프 선수에 대해 파리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인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으나 결승전을 앞두고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았다. 통상 남성이 가지고 있는 XY 염색체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IBA와 달리 IOC가 이들에게 경기 출전 자격을 부여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롤링은 30일 엑스(옛 트위터)에 두 사람에 관한 가디언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 미친 짓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성 복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상을 당하는 것? 여성 복서가 죽는 것?"이라고 올렸다. 린위팅과 칼리프의 출전을 공개 반대하면서 혐오성 발언을 한 것이다. 롤링은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대만 누리꾼들은 롤링의 발언에 대해 "린위팅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원래 여성이다", "롤링이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인 장관위는 "어떤 사람들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에게 가까운 특성이 있다"며 "생물학적 세계의 법칙은 항상 소설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올림픽 위원회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상 의문을 제기해선 안 된다"고 롤링의 발언을 저격했다.

그러나 성별 논란 선수와 맞붙게 된 국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칼리프는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선수와 여자 66kg 16강을 치르는데 이탈리아 정치권은 이에 우려를 표했다. 안드레아 아보디 체육부 장관은 "스포츠의 최고 무대인 올림픽에서는 선수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존중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유빈은 왜 '고교 포기' 했나... 다시 도마 오른 학생선수 학습권

‘탁구 신동’ 신유빈(20)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신 선수가 운동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고교에 진학하는 대신 실업팀으로 직행했기 때문이다.

정유라가 줄인 출석 인정일, ‘신유빈 사태’로 다시 늘어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됐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선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초·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 4만 6000명, 개인이나 사설 클럽 소속이 2만 4884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규 수업에 불참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다. 대회·훈련에 참여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 인정 일수’ 제도가 있어서.다 출석 인정 일수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매해 축소됐다. 2019년까지는 초·중·고 학생 선수 모두 연간 63일(수업일수 3분의 1)까지 수업에 빠져도 됐다. 하지만, 2022년에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까지 줄었다.

그 배경엔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사건이 있었다. 정씨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도 승마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스포츠계는 출석 인정 일수 축소가 오히려 학생 선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훈련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말 대회 개최가 어려운 종목의 선수들은 훈련·시합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수업 부담이 적은 방송통신고교에 진학한 학생 선수는 2019년 115명에서 지난해 51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신유빈과 김나영은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는 대신 실업팀에 입단했다. 당시 신유빈의 아버지인 신수현 수원시 탁구협회 전무는 “유빈이가 훈련에 매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데다,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2022년 워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세혁 선수도 중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향 전환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 인정 일수를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등 50일로 다시 확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은 2025년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직업선택권과 운동할 권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로’ 관문 좁아...“기초학력·진로교육 필수”

여전히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기초학력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생 선수 중 프로가 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초·중·고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중 1781명이 지난해 운동을 포기했다. 이유는 진로 변경(85.0%)이 가장 많았고, 질병·부상(6.8%)과 개인 사정(4.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 나이는 23.6세로, 은퇴 후 무직 비율도 41.9%에 달한다. 학생 선수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두고도 체육계의 반발이 크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인해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을 넘지 못하는 학생 선수는 다음 학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를 두고 한 체육계 관계자는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리면서, 최저학력을 넘기라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강준호 서울대 사범대 학장(스포츠경영학 교수)은 “교육은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직업인이 되는 것과 상관없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스포츠를 진로로 정한 학생과 일반적인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같은 내용으로 공부해야만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도만 잘했던 나라였는데..." 일본은 어떻게 올림픽 1위가 됐나

"30년 전 애틀랜타 올림픽을 취재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앞으로도 유도에서만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편집위원 칼럼에서 일본이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순위 1위국이 되는데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 3개가 전부였던 30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성적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본은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국가가 됐다. 메달 개수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1개를 딴 미국이 26개로 1위다.

결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초반 흥행에 일본도 들뜬 분위기다. 언론도 이런 성장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카츠(部活·부 활동)'로 불리는 동아리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학창 시절 취미로 운동을 시작할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배출도 빨리 이뤄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해당 칼럼에서 일본의 올림픽 성적이 좋은 이유와 관련해 "3년 전 2020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펼쳤던 국가의 지원, 즉 세금 투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20 도쿄 올림픽 대책에 "일본 대표 선수의 메달 획득을 위해 선수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래 유망한 선수를 발굴·육성한다"면서 트레이닝 센터 확충, 스포츠 참여 인구의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동아리로 시작해 올림픽으로...생활체육 보편화

학생들의 활발한 동아리 체육 활동도 올림픽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는 학교마다 야구, 축구 등은 기본이고 카누, 체조 등 특화된 스포츠 동아리를 가진 곳도 많다. 닛케이는 과거 칼럼에서 "일본은 학교에서 스포츠를 하는 게 당연한 나라"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50%는 동아리 중 운동부에 소속돼있다"며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 경험자가 많다. 동아리와 올림픽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능 있는 소수의 학생만 뽑아 선수로 양성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일본 동아리 활동은 1886년 도쿄대의 전신 제국대에서 학생들이 설립한 '제국대 운동회'가 시초다. 일본에서는 검도 등 심신을 단련하는 무술이나 무도가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었는데, 개화와 함께 선교사들이 스포츠를 전파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을 받아들이게 됐다.

심지어 1912년 일본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가나쿠리 시조도 동아리 활동으로 마라톤에 입문한 경우다. 가나쿠리는 '일본 마라톤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출전 당시 쓰쿠바대학교의 전신 도쿄고등사범학교 지리학과 소속으로 스포츠와는 무관한 전공생이었다. 도쿄고등사범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대회, 장거리 달리기 대회를 열 정도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힘을 쏟고 있었고, 가나쿠리는 이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게 됐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다. 일단 가입하면 1년 내내 방과 후나 휴일에도 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을 해야 한다. 교사 중에서 해당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담당 코치가 된다. 학생들은 주말 연습은 물론이고 방학 전지훈련과 합숙도 불사한다. 특히 야구부의 경우 교사가 학창 시절 야구부 출신이거나 선수를 꿈꿨던 '재야의 고수들'이었던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교사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다 보니, 때로는 동아리 활동이 '교사들을 착취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이 동아리 담당을 외부 강사와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동아리 문화는 현재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올림픽에서 주목받은 신규 종목은 새 동아리 활동으로 발전한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된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일본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자 학교들이 앞다퉈 동아리 활동으로 채택했다. 니가타현 가이시국제고등학교는 기존 스노보드부의 강점을 살려 도쿄올림픽 이후 스케이트보드부를 신설했다.

운이 좋으면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한 스포츠에 10년 이상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 가령 1949년부터 현 내에 빙상장이 있던 군마현의 경우 올림픽에 출전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 군마현의 초·중·고교에서 빙상부 소속으로 활동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다 보니 동아리가 운동 노하우를 후대에 전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오사카시 세이후 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 15명의 체조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낸 '체조 명문'이다. 선배 중에 올림픽 선수가 나오면 학교에 방문해 후배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이를 통해 후배들도 자극을 받아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나카자와 아쓰시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스포츠를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가정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며 "일본은 입문이 쉽고, 이것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과도 연결돼 '동아리 문화'로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인구급감은 변수... "야구팀 만들 사람도 없다"

다만 변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48년께 중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수는 역대 최다였던 2009년 대비 3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단체 사사가와스포츠재단도 야구를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10대 인구는 2001년 117만명이었으나, 2021년은 65만명으로 반토막 났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야구, 축구 등 단체 구기 종목의 경우 학교 단위로 팀을 짜기조차 어려워진다. 이미 학교 연합팀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인기종목의 경우 타격은 더욱 크다. 일본중학교체육연맹은 1979년부터 주최한 전국중학교체육대회와 관련, 2027년 이후 경기 종목 19개 중 9개 종목을 폐지할 전망이다. 폐지가 결정된 종목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들로 스모,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핸드볼, 리듬체조 등이 대표적이다. 핸드볼 동아리가 전국 중학교 동아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7%, 여자 6%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핸드볼연맹 사무국장은 "단 한명의 슈퍼스타로 핸드볼계의 위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언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기대 말라더니 金 벌써 10개... "체육회, 무능하거나 면피였거나"

파리올림픽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4일 기준 10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당초 전망한 예상 성적을 크게 뛰어넘었다. 기대 이상의 성과에 대해 안팎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판세 분석 역량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국은 파리올림픽에서 4일까지 10개의 금메달을 가져오며 승승장구 중이다. 금메달 1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지난 2012년 런던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 두 자릿수를 다시 찍었다.

‘전통의 효자 종목’ 양궁이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까지 석권하며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 했다. 사격에서도 여자 권총 25m(양지인)와 여자 공기권총 10m(오예진), 여자 공기소총 10m(반효진)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펜싱은 사브르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다. 대회 일정이 절반을 갓 넘어선 상황인 만큼, 금메달 개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런던에서 작성한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을 뛰어넘지 못 하더라도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은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오전 기준 한국 선수단은 총 24개의 메달(금10·은7·동7)을 따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기록한 종전 최다 기록 33개(금12·은10·동11)와 9개 차다. 안세영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은메달을 확보한 만큼 다른 종목에서 9개를 보태면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 태권도(박태준), 근대5종(전웅태), 브레이킹(김홍열), 사격 남자 속사 권총(송종호·조영재), 육상 높이뛰기(우상혁), 수영 여자 다이빙(김수지), 역도(박혜정), 여자 골프 등에서 금메달까지 포함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찬사 못지않게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체육회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제시한 탓에 우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대표팀이 2000년대 들어 가장 저조한 성적에 그칠 것이라는 체육회 전망이 나온 이후 올림픽에 대한 안팎의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 지난달 27일 파리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생중계한 지상파 3사를 합쳐 3.0%에 그쳤다. 3년 전 도쿄대회 시청률(17.2%)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시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회 개막 직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게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우리 선수들의 잇단 선전과 함께 올림픽 열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 4일 김우진이 출전한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의 경우 시청률 1위에 오른 MBC 한 곳만 18.3%(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체육회의 전망이 크게 빗나간 건 두 가지로 분석 가능하다. 우선 선수들 개개인과 종목별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당초 전망과 비교해 금메달 개수가 2~3개 정도 차이 날 순 있지만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 건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쟁력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체육회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동호 평론가는 “체육회는 이전 대회인 도쿄올림픽부터 ‘엘리트 체육의 위기’ 운운하며 우리 선수단의 예상 성적을 낮춰 잡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급 변수가 있었던 도쿄를 예외로 두면 대한민국 선수단은 꾸준히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체육회가 올림픽 전망을 비관적으로 제시해 엘리트 체육 예산 확충을 위한 볼모로 쓰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파리올림픽 성적 예측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해 해병대 훈련 등을 통해 여러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사이가 끈끈해지면서 ‘원 팀 코리아’ 문화가 생긴 것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원인이 어느 쪽이든 ‘목표 설정 오류’에 대해 체육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방송사와 기업 등 ‘올림픽 특수’를 기대한 여러 분야에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기 종목인 남자 축구와 여자 배구 등이 탈락한 상황에서 본선 전망마저 어둡게 나와 대회 전 홍보와 광고 유치에 애를 먹었다”면서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면 무능이고 일부러 목표치를 과도하게 낮춘 것이라면 고의적인 면피다. 양쪽 모두 비판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물두살인데...안세영 돌연 대표팀 은퇴 선언, 그 이유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세영은 오늘(5일) 경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한 뒤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지만 많은 실망을 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은퇴 이유에 대해선 자신의 부상에 대한 대표팀의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안세영은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저희 대표팀에게 조금 많은 실망을 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너무 눈치도 많이 보시고 너무 힘든 순간을 계속 보내게 한 것 같아 그 미안함도 많다" 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스물두살인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인 2017년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안세영의 갑작스러운 은퇴 시사 발언은 대표 선수의 부상 관리를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됩니다.

유수피의 질주는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시작됐다

카미아 유수피(28)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여성 선수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난민대표팀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유수피는 지난 2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교외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 육상 여자 100m 예선전에서 13초42의 기록으로 3조 꼴찌인 9위를 차지했다. 그의 진짜 질주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시작됐다.

경기 직후 유수피는 자신이 달고 있던 번호판을 뜯었다. 그리고 뒷면을 들어 보았다. 두 단어가 자필로 적혀 있었다. "교육" 그리고 "우리의 권리"였다.

미국 AP통신은 2일 "유수피의 이야기는 올림픽 여정이 늘 이기고 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용기 있는 예"라고 보도했다. 유수피는 경기를 마친 뒤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언론과 대화할 수 있고, 아프간 소녀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권리, 교육, 스포츠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피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21년 8월 탈레반에 의해 점령됐다. 그 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혔다.

AP통신은 지난해 국제연합(UN)의 통계를 인용,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고 전했다.

유수피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전, 탈레반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했다. 유수피와 그의 세 형제는 이웃 나라인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12년 당시 16세였던 유수피는 이란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이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탈레반이 다시 나라를 장악했다. 2020 도쿄 올림픽이 시작될 무렵, 그는 호주 관계자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움으로 호주로 이주했다.

유수피는 올림픽 난민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흠이 있든 없든 조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여성 선수로 출전한 유수피는 이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전 세계에 알렸다. 조국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비쳤다.

유수피는 "이것이 나의 국기이고 나의 조국이다. 여기가 내 땅이다"고 말했다.

'올림픽 선수 16명 중 12명이 여성'... 북한 스포츠, 왜 '여성 파워' 주목받나?

세계 각국 선수들이 수년간 고된 훈련의 빛나는 성과를 선보이는 올림픽. 특히 2024 파리 올림픽은 완전한 성평등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남녀 출전 선수 성비를 50대 50에 근접하게 맞췄다. 하지만 출전 선수의 성비에 주목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다. 8년 만에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다. 출전 선수는 총 16명. 그중 12명이 여성이다.

지난달 31일 북한 김미래·조진미 선수가 다이빙 여자 싱크로 1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북한이 다이빙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금영·리정식 선수도 탁구 혼성복식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북한 선수단에는 북한 관영매체들이 올해 초 발표한 '2023 10대 최우수 선수'에도 이름을 올린 이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명단에 오른 10명 중 8명이 여성이다. 물론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전체 참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북한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체육 강국 건설'

북한 전문가들은 역대 북한 지도자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민'을 대상으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한다.

북한학자 이나영 씨는 BBC 코리아에 "사회주의 체육이 지향하는 바가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를 가진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구소련이나 중국도 다 이러한 기조로 체육 정책을 설계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북한학 전문서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북한의 여성체육 담론'을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특히 북한이 1960~70년대부터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봤다. 당시 올림픽은 "체제 경쟁의 대리전"이 이뤄지는 곳이었으며, 여성 선수의 활약은 "사회주의권 여성들은 평등하고 이미 해방을 이뤘"음을 보여주기에 제격이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1972년 올림픽에 처음 참가했다. 뮌헨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은메달 1개만을 획득한 한국을 압도했다. 2000년대 탈북한 북한 전 복싱 국가대표 김상운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은 "내가 북한에서 운동을 하던 90년대에도 학교마다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분리해서 유소년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다"며 "(최고의) 운동학교에서는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인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회상했다.

2011년 말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초기부터 '체육강국 건설'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왔다. 그 스스로도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져있다. 집권 직후 체육 정책 및 사업 총괄을 위해 발족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지금까지도 핵심 간부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체육 텔레비전방송'을 신설해 주말마다 스포츠 경기를 방송했다.

이우영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일지라도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향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신있다고 여기는 체육 쪽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적 취향까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장 계속

'여성 파워' 비결은

그렇다면 최근 북한 여성 선수들의 활약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 여성 선수들에게 명확한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북한 남성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북한 체육 분야 등을 연구하는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북한 여성에 비해 남성 선수들의 신체적 조건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북한 남자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큰 단점이 왜소한 신체”라며 “서구권 선수들의 체격을 따라가려면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잘 먹고 많이 먹는 등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체육강국 건설’을 선언한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제한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여성 스포츠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투선수 출신 북한이탈주민 한설송 씨는 북한에서 여성 스포츠 인재를 특별히 더 후원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성차별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북한에서 선수들끼리 나눴던 대화가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유럽 등지의 남자들은 체질적으로 우수한 데다 스포츠 역사도 깊기 때문에 (북한) 남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벽을 넘기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반면 여성의 경우 국제적으로 스포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또 북한 여성이 강인하거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에서는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현재 30대 초반인 한 씨는 2010년대 중반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7년여간 전문 권투선수로 활동했다. 유명 선수를 다수 배출한 명문 4·25체육단에 소속돼 활동한 경력도 있다. 한 씨의 말대로 북한 여성 선수들이 활약하는 분야는 복싱, 레슬링, 역도, 육상 등 종목이 다소 제한적이다.

북한에서 ‘체육 영웅’ 대접을 받는 여성 선수로는 1960년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육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신금단 선수,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당시 일본 유도 최강자 다무라 료코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계순희 선수, 1999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7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 선수 등이 있다.

여성 지위 향상?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체육을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후 여성 정책 전반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국제부녀절’로, 11월 16일을 ‘어머니의 날’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다. 딸 김주애, 동생 김여정, 최선희 외무상 등 공식 석상에서 여성의 존재감도 커졌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으며, 가정 내 발언권이 강해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정된 성역할과 차별 의식은 주민들에게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특히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차별 의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는 맞지만, 취업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그밖에 활동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여성) 차별이 있진 않다”며 “그래서 여성 체육이 위축됐던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김정은이 여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시도와 더불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사상 재교육 목적이 있다고 봤다. “현재 북한에서 10대 후반~20대 초반 젊은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장마당(시장)에서 경제활동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이 세대는 부모님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면서 북한 사회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위해 장마당(시장)으로 나왔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배급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장마당 세대 여성은 체제 설득 대상이자 자녀들에게 이를 교육시켜야 할 주체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북한에서의 진정한 여성 지위 향상을 뜻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여성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이나영 박사는 “북한 여성들은 당을 위한 인민이 돼야 하고, 노동에 이바지도 해야 하고, 출산·육아도 해야 하고, 이제는 반사회주의적인 기조를 막을 수 있게끔 자식 교육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과한 책임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다 보니 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여성 체육의 경우에도 훈련 과정에서의 폭력 문제나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한 씨는 “북한은 여성 인권뿐 아니고 모든 게 열악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 인권은 더 보장받지 못한다”며 “(북한 체육계에서) 폭행이나 추행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남성이 (참가)하는 북한 내 대회·시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여성은 팀이나 인구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는 대회·시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나오는 여성 선수들보다 북한에는 더 우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잠재돼 있다”며 “다만 올림픽에 못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이 있어 참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씨는 국제 무대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동정심이나 반감을 갖고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체육인’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냥 (북한 선수들이) 일단은 이념을 떠나서 올림픽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됐음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충북 제천시, 체육시설로 스포츠도시 기반 닦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5509650?OutUrl=naver>

안세영, 대한체육회 공식 기자회견 불참키로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06001000641?input=1825m>

인천교육청, 호주 시드니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051423501963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google_vignette

보은국민체육센터 주민체력증진공간 자리매김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667>

충남대병원, 비대면 장애인 재활체육 프로그램 진행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22243.htm>

양주시, 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점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8584&ref=A>

"학교 체육 정상화해야 한국 스포츠 발전"

https://www.seoul.co.kr/news/peoples/2024/08/06/20240806021002?wlog_tag3=naver

함안군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대상 체육활동 실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051307400620692>

"아시아 첫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할것"

<https://www.mk.co.kr/news/politics/1108462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